

# 발명 365

## 전화음성 변조기

TV에서 음성변조를 하듯이 이제 전화음성도 변조를 하여, 전화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었다.

전화는 여러 가지로 편리한 기계지만 전화폭력에는 속수무책이어서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의, 다른 여러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이 장치를 이용하면 여자 음성을 남자음성으로 바꿀 수 있고, 개 짖는 소리 등의 소음을 배경으로 쓸 수도 있다.

이 전화음성 변조기를 발명한 회사는 미국 뉴욕의 포트체스터에서 보안장비를 제작하는 씨씨에스 통신 컨트롤사. 이 회사가 개발한 음성 변조기에는 목소리의 고저를 조정하는 다이얼과 배경 소음을 넣어주는 주정장치가 붙어 있다. 이 개발품은 여자 혼자 사는 집이나, 나이 어린사람들만 있는 집에서는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개가 짖고, 철근을 두드리고, 굵은 남자 음성이 유효할 터.

## 제빙기

1949년 겨울 미국의 스키인들은 막연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눈이 내리지 않아 스키를 탈 수 없었던 탓이다. 그러나 모하크에 있는 한 스키장만은 달랐다. 월트 손크네흐트가 운영하는 스키장에는 사람들로 초만원이 이루어졌는데, 눈이 한번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키장이 하얀 눈으로 가득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월트는 스키를 무척 좋아하여 스키장을 개장했다. 그러나 눈이 많이 내렸을 때는 호황을 누렸지만 눈이 내리지 않는 겨울은 개장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고민끝에 오래된 스키장을 찾아다니다 몇몇 사람들이 분쇄기로 얼음을 잘게 부수어 스키 점프대에 뿌리는 것을 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리고 1950년 1월 월트의 스키장에는 거대한 얼음분쇄기가 설치되고, 수백톤의 얼음 알갱이가 되어 쏟아졌다.

## 제트엔진

대기 중의 공기를 빨아들여 이것에 연료를 가해서 태운 뒤, 연소한 가스를 대기 중에 고속도로 분사시켜 비행기를 추진시키는 것이 제트엔진의 원리이다. 제트엔진은 영국의 공군소위 프랭크휘틀에 의하여 발명되었다. 이로써 세계는 더욱 가까워졌으며 '지구촌'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1929년 당시 영국 워터링의 중앙비행 학교에 다니던 휘틀은 프로펠러가 없는 비행기, 즉 제트엔진으로 나는 비행기를 구상하고 있었다. 프로펠러 추진식 비행기는 아무리 빨리 날아도 시속 700킬로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공군성에서조차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제트엔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어 제트엔진의 연구를 계속했다. 마침내 제작이 완성되어 1937년 첫 실험을 거쳐 1941년에 성공하였다.